

보라, '부처님' '불교' 말 않고도 佛法 전하는 비법을

부산 제일 자비기도도량 진여원

조계종 진여원(원장 남순덕, 법명 보타월)은 추석을 이틀 앞둔 9월 9일 오후 4시경내 무료급식소에서 지역 내 홀로어르신 100세대에 쌀 340kg을 전달했다. 이어 10일과 15일에는 부산김해교도소 재매결연을 맺은 27명을 포함한 300여 재소자 및 육군 53사단 125연대 6대대 군장병에게 각각 명절음식과 함께 따뜻한 한가위의 정을 나눴다.

부산시 구포2동 구포대교 동단에 자리한 진여원은 수행정진과 자비행을 실천하는 자비기도도량이다.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70여 지역 홀로어르신에게 점심 공양을 무료로 대접하는 무료급식소를 운영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어르신 15명에게는 직접 도시락을 배달하기도 한다. 그리고 매월 셋째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김해교도소에서 각각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또, 매년 6월 둘째주 금요일 '호국영령추모제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를 개최하며, 올해로 13년째를 맞고 있다. 이처럼 진여원의 모든 신행활동의 주제가 봉사가 된 데에는 남보타월 원장의 아버지의 유훈 영향이 컸다.

"어릴 적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매년 설과 추석에 동네의 거지들에게 명절음식과 용돈을 나눠 주셨어요. 훗날 가세가 기울어 제가 고향을 떠날 때까지도 아버지의 나눔은 이어졌지요. 당시 아버지는 '부처님 전에 내 이웃에 밥 굶고 사는 이가 없이 두루 잘살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고, 이는 제 평생의 서원이 됐습니다."

진여원 인근의 구포다리는 1932년 만들어진 아시아에서 가장 긴 다리로, 부산과 경남을 잇는 유일한 교량이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도 부산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세순가락 안에 꼽히는 지역이다. 20여년 전 출퇴근길에 구포다리를 오가던 남 원장은 독방의 오갈 곳 없는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밥 한그릇이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발원을 세웠다.

"굳이 부처님법을 구하려 찾아오지 않아도 좋습니다. 배고픈 이는 공양을 하고, 휴식이 필요한 이는 마음을 쉬었다 가십시오. 배고픔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부처님도량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찾게 되니까요. 어려운 환경의 대중에게 행동으로 다가가서 닫힌 마음을 열고, 그 속에서 불성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1996년 2월 27일 진여원을 개원했다. 진

여원의 포교 전략은 '윗층 기도정진, 아랫층 공양보시'다. 4층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며 기도정진하고, 아래층 무료급식소에서는 대중공양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2층에 자리한 무료급식소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염불소리는 이들의 발길을 4층 법당으로 이끈다. 식사를 대접하며 '부처님', '불교'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지만, 이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 사람들이 배푸는 따뜻한 점심 한그릇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릴 수 있다. 이러한 남보타월 원장과 100여 명의 열정적인 포교는 부산 김해교도소의 무기수들까지도 감화시켰다. 현재 부산 김해교도소에 복역 중인 재소자 김남식 씨도 남 원장과 진여봉사회를 통해 부처님의 제자로 거듭 태어났다.

김 씨는 9일 오전 남보타월 원장과 전화통화에서 "원장님은 감옥 안 우리에게는 주지님이고 생활 속 부처님이다. 님없었다"며 "하루 속히 진여원 도반들을 뵙고 싶지만 보고 싶은 것을 잡는 일도 인욕이라고 했으니, 다시 만날 때까지 이곳에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김남식 씨가 진여원과 인연을 맺은 것은 10년 전. 남 원장이 부산김해교도소의 교정교화위원 자격으로 법회를 주관하면서부터다.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생을 못다 이룬 이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매일 <관세음보살보문품> 사경과 108참회기도를 시작했고, 매년 12월의 편지와 함께 사경을 해서 진여원으로 우편발송하고 있다. 교도소 생활 중에도 부처님께 수행정진에 임한 덕분으로 복역 중 전문대학 과정을 수료하고, 조계종포교사 자격증을 득하는 등 모범재소자로 정평이 나았다. 또한, 6년 전부터 '진여원 도량 건립봉사 3000원 후원기도'에 동참해, 2014년 7월 회향에 맞춰 출소할 것을 발원하고 있다.

남 원장은 "사회와 단절된 이들의 마음의 벽을 뚫고 불성의 씨앗을 싹틔우기란 어려워, 처음에는 간식을 먹고 바깥 쪼며 놀기 삼아 다녀가라고 벌회로 이끈다"며 "고통받는 마음을 알아주며 이곳에서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길 권유하다보면 어느새 부처님 가르침에 젖어든다"고 말했다.

또, "출소 후에도 재범하려는 악의 종자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도소 내 포교뿐 아니라 직장과 거처를 마련해주는 등 불교의 사회복지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진여원은 남보타월 원장이 주축이 되어 신도 전원이 봉사회에 소속돼 기도정진의 공덕을 자비나눔으로 사회에 환원하며, 구포 지역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부처님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인접한 구포시장 상인들도 매일 생물을 살생하는 업장



남순덕 원장이 군장병들에게 직접 음식을 나눠주며 따뜻한 한가위를 즐기는 모습.

매주 170여 어르신 무료 점심 공양 20년 전, 구포다리 동방에서의 발원 진여원 개원으로 공양보시 하게 해

을 소멸하기 위해 매일 아침과 저녁 법당에 들러 참배하고, 장사를 하는 중에도 관세음보살 정근을 놓지 않는다.

진여원 신도라면 누구나 진여봉사회에 가입돼 있다. 매일 오전 법당에서 사시예불 및 개인 기도를 마치고, 아래층 무료급식소로 내려와 봉사활동에 동참한다. 체계적인 급식소의 운영을 위해 조를 정해 담당 조원이 시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설거지 및 뒷정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심수년을 함께 밥을 짓고, 육신보시를 행해온 만큼 봉사회원 중 누구와 조를 이루든지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진다.

이옥성(50. 범명 연하심) 씨는 개원부터 지금까지 진여원을 지켜온 창립 멤버다. 그녀는 남보타월 원장님이 큰 술을 쥔 마당 한가운데에 놓고 배고픈 이들에게 따뜻한 시락국을 무차별발공양 올리라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의 두근거림을 잊지 못한다. 이 씨는 "젊은 시절부터 부처님법

공부하러 여기저기 다녀서 알음알이만 늘어날 뿐,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던 차에 진여원과 시절인연이 닿아 함께 기도하며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며 "부족한 반찬에도 맛있게 잘 먹고 간다는 어르신들의 미소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그분들을 위해 건강이 허락하는 한 평생 진여봉사회에서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홍점순(49. 범명 연하안) 씨는 진여원에서 못다한 효도를 실천하고 있다. 홍 씨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동안 직장 생활이 쫓겨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있었다"며 "열심히 부처님법 공부하고 기도한 후 무료급식에 동참하는 동안 환희심은 2-3배로 늘어남을 느꼈다"고 말했다.

13년간 이어온 진여봉사회의 활동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우바이로 구성된 봉사회에 거사님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했다. 남편과 자녀에게 법회에 참석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망설이지만 함께 봉사하자고 하면 흔쾌히 동참하는 것이다. 무료급식소에서 우바세들의 역할은 배식과 설거지다. 특히, 매년 겨울 구포시장과 자갈치시장에서 동지팍죽 대중공양 때 이들의 힘이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생세를 몰아 진여원과 남보타월 원장은 범부

못다한 효도 봉사로 회한 풀어 남편과 자녀들도 흔쾌히 동참 2014년, 불교회관 완공이 목표

부장관상으로부터 '감사패', 대구교정창장의 '표창장', 부산시장상, 조계종포교원장상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남 원장은 "상을 받을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 그럼에도 그간 도반들의 노고가 인정받고, 격려해주시는 것 같아 감사한다.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강조하셨던 만큼 상을 받을 때마다 몸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다듬게 된다"고 말했다.

이따금 수상경력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년 전만해도 출가수행자가 아닌 재가자가 연 사람은 상업적이라는 편견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다. 간혹 사회복지단체로 오인해 봉사활동 후 인증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혹자는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감투를 쓰고 정부 보조금을 얻어 사리사육을 채우려 한다고 비난했다.

"가장 섭섭했던 점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살림이 넉넉하고, 남은 돈으로 사리사

육을 채운다는 말이었어요. 그동안 진여원의 행보가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서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데요. 진여원의 불교회관 건립봉사는 큰 원을 세우고 나니 법인을 설립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정 역시 투명하게 대중에게 전달될 테니까요."

남보타월 원장은 개원 18주년을 맞는 2014년 3000원 기도 회향에 맞춰 진여원 불교회관 건립봉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부산시 북구청과 협력해 200평 지상 4층 규모의 호국 진여원을 건립해 진여원에 모셔진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 235위의 위패를 봉안할 예정이다.

또 이곳에 불교문화센터를 열어 불교교리강좌 및 다양한 신행활동 프로그램 신설, 지역아동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신도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봉사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남원장은 "나는 심부름꾼이다. 배풀려는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제대로 보시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주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피력이 닿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바로 진여원이다"고 말했다. (051) 338-1008

박지원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스님! 법당의 앰프 소리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지금 즉시 - 전화주세요...
(27년간 전국 870여 사찰에 설치)

• 스테레오 앰프 300AN
2Channel Stereo Mixing Amplifier Distal Echo

• 고품질 무선마이크

고장난 마이크 완벽하게 수리해 드립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1개만 사용해도 법당의 소리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 DX-707 스텐드 마이크

◆ 특징: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질, 음질 보강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 가격: 250,000원 (택배비 포함)

• 법당 전용 스피커

◆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가격: 500,000원 (상차비 포함)

• 일반 마이크 V-606LC

◇ 가격: 65,000원 (택배비 포함)

• 고성능 탁상마이크

◇ 가격: 135,000원 (일반형) / 175,000원 (고급형)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들)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내면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지역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중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 주문: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능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